



애통의 기도

참고하여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Rev. Alka Lyall
Clergy -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목사 -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IL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게 합니다. 인류와 사회 정의를 위해 행해진 모든 일들은 충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하나이까?

우리는 유색인종집단(BIPoC)과 성전환자들의 삶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가치 없고 미미한 존재로 여겨지며, 이민자들을 외계인 취급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한 흑인은 부당하게 사형을 당하고, 갈색 피부를 가진 한 사람은 살해되고, 한 원주민의 아이는 강제로 영어를 말해야 되고, 한 성전환자가 실종되어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국경의 장벽이 강화되고, 이 나라밖에 모르는 젊은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나라로 추방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투표 제한 문제, 저소득층의 낮은 식료품 접근성 문제, 그리고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쫓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정의를 간구할 때마다 매일같이 패배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백인 우월주의가 우리의 목을 더 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배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평등과 정의라는 신선한 공기를 우리는 언제쯤 마실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더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기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영이시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 하소서! 주님의 실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소서. 우리의 겸손한 외침을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이지시여, 우리의 분노와 좌절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추구하고, 만인의 평등을 이루게 하시며, 상처입은 약자들 곁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lma W. Pérez
*Director of Hispanic/
Latino Resourcing of
Discipleship Ministries
Nashville, TN*

공포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는 낮에 들었던 뉴스로 인해서 한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권력을 악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찰들, 오염과 착취를 유발하는 인간의 이기심,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죽음들, 이단 우상숭배자들의 치료를 거부하는 무지함, 특권의식,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에 의해 만들어진 무거운 장벽들(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저는 더 이상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 속으로 눈물을 삼킵니다. 사람들이 제 어눌한 영어 발음으로 저를 차별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제 성별은 저에게 열등하고 소외된 자라는 억눌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시끄럽게 울리는 북소리, 아초떼 의 풍미, 야자수의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카리브해 해안가로 대표되는 저의 카리브해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민족 중심주의와 부딪혔습니다.

한밤 중에 이러한 저의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불면증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까지입니까? 무력감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이 고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애통함 속에서도 당신의 임재와 따스함이 저와 함께 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와 함께 울었고, 또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로 나를 붙잡았고 이끌었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 3:17-19)

¹카리브해나 멕시코에서 주로 쓰이는 요리 재료 중에 하나이다. (역자 주)



**Rev. Connie
Semy P. Mella, Th.D**
*Academic Dean
of Union Theological
Seminary
Philippines*

오 하나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우리 마음의 외침에 귀를 열어 주소서. 우리의 영혼의 탄식에 주의를 기울여 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곤경을 보았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들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악한 행위들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 악을 견뎌야 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정의와 공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통곡해야 합니까? 피부색, 인종, 지위, 성별 등을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참상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부상을 입은 자들과 고아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까? 피난민과 전쟁 포로의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남겨진 유족들의 고통은요?

우리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조롱과 교만에 애통해 합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살인, 속임수, 왜곡되어 버린 진리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사회의 삶을 파괴하는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죄로 인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의 편에서 서서 우는 동안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때로는 부정이 너무 강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당신이 통치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아멘.



Rev. Gigi A. Warren
*Ordained Elder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Board
Member of GCORR
Atlanta, GA*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큰 슬픔의 시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쳤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우리의 영이 상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우리의 혼이 실신할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할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에 주님이 우리 생명의 호흡 되십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슬픔을 넘어 공감으로 변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애통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v. Leo Yates
병원 사목
Hanover, MD

오 하나님, 당신은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애통을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나요? 그리고 당신도 하지 못하시는 건지...?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우리의 애통이 너무 무거워 짊어지고 가지 못할 때 당신을 보고 당신의 위로를 찾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문제들에 휩싸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길고 긴 골짜기를 지날 때 당신의 임재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 전쟁이 이 세계를 다시 한번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성차별, 억압, 그리고 폭력 행위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선한 길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물샘은 마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 위해 산을 향해 눈을 들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손을 들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소서. 우리 개인과 가족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발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빈 무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소망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시 22:10)



M. Garlinda Burton

Nashville, TN

은 종교와 인종에 대한
총회의 계발자이자
연합감리교 집사이다.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놀랍게 만드셨고, 우리를 모두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당신의 피조물들은 당신에게 반박하며 말하기를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신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인류를 향하여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와 그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축복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압제자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빼앗고, 군림하고, 당신의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불의가 정의를 덮을 것입니까? 권세 있는 자가 내려오고 이유 없이 멸시를 받던 자들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자리로 강등당한 사람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인종차별주의가 당신의 교회를 납처럼 둘러싸서 따뜻한 태양이나 아들의 빛이 비치지 않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조롱과 차별이 군림하게 할 것입니까? 언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오늘 정의가 무너지게 하십시오. 억눌린 자들과 압제자들의 마음에 새 노래를 불어넣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사명이 다했을 때- 마침내 영원한 화해라는 공동된 기반 위에서 춤을 추게 하십시오.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새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홍정표

담임 목사,

*Christ Crossman UMC
Falls Church, VA*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두려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폭력과 상해로 인한.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차별을.
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분이 되옵소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당신은 가까이 계십니까?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걸어가는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계적인 전염병이 내 탓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가까이하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애痛. 시편 저자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내 영혼의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아멘.